

2021 부산 사회공헌 조사

- ◇ 부산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후원금품 수입 현황
- ◇ 부산 향토기업·우수기업 사회공헌 실태
- ◇ 기업 임직원 사회공헌 인식 설문

목차 (CONTENTS)

들어가며	04
 I 부산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후원금품 수입 현황	06
 II 부산 향토기업·우수기업 사회공헌 실태	16
 III 기업 임직원 사회공헌 인식 설문	23

들어가며

2021 부산사회공헌조사는 **부산의 사회공헌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전국 차원에서 사회공헌 관련 이슈를 다루는 ‘사회공헌백서’가 매년 발간되고 있지만, 지역 차원에서 사회공헌을 들여다보지는 않습니다. 또한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지만 ‘누가, 무엇을, 얼마나, 어디에, 어떻게’라는 종합 현황 조사가 부재했습니다. 이에 우리 부산광역시사회공헌정보센터에서는 부산 사회공헌 현황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 보고자 했습니다.

1

첫째, 부산 사회복지법인·시설 후원금품 수입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부산의 사회공헌 총량을 간접적으로 파악해보는 한편 사회복지시설의 형태와 영역에 따라 사회공헌 자원의 양이 얼마나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봤습니다.

2

둘째, 부산을 대표하는 향토·우수기업의 사회공헌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부산 기업들은 어떤 분야와 대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3

마지막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사회공헌 실천 주체인 기업 임직원들은 사회공헌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현대 사회문제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공헌 관련 연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2021 부산사회공헌조사가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와 연구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I

부산 사회복지법인 · 시설 후원금품 수입 현황 (2018~2020)

▶ 조사개요

- 조사범위 — 부산 사회복지법인·시설 831개소
- 조사방법 — 사회복지법인·시설 후원금품 수입 내역 정보공개 요청
사회복지법인·시설 시설형태별·영역별·세부시설별 연평균 후원금품 수입 비교
- 조사내용 — 사회복지법인·시설의 최근 3년간(2018~2020) 연도별 후원금품 수입
※ 공동모금회 등의 배분금액 포함, 후원금 중복 산입 방지를 위해 운영법인의 전입금 제외

부산 사회복지법인·시설 후원금품 수입 현황



부산의 사회공헌 자원은 얼마나 될까요?

또 어떤 영역을 중심으로 전달되고 있을까요?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831개의 사회복지법인·시설의
후원금품 수입 자료를 분석하여 추정해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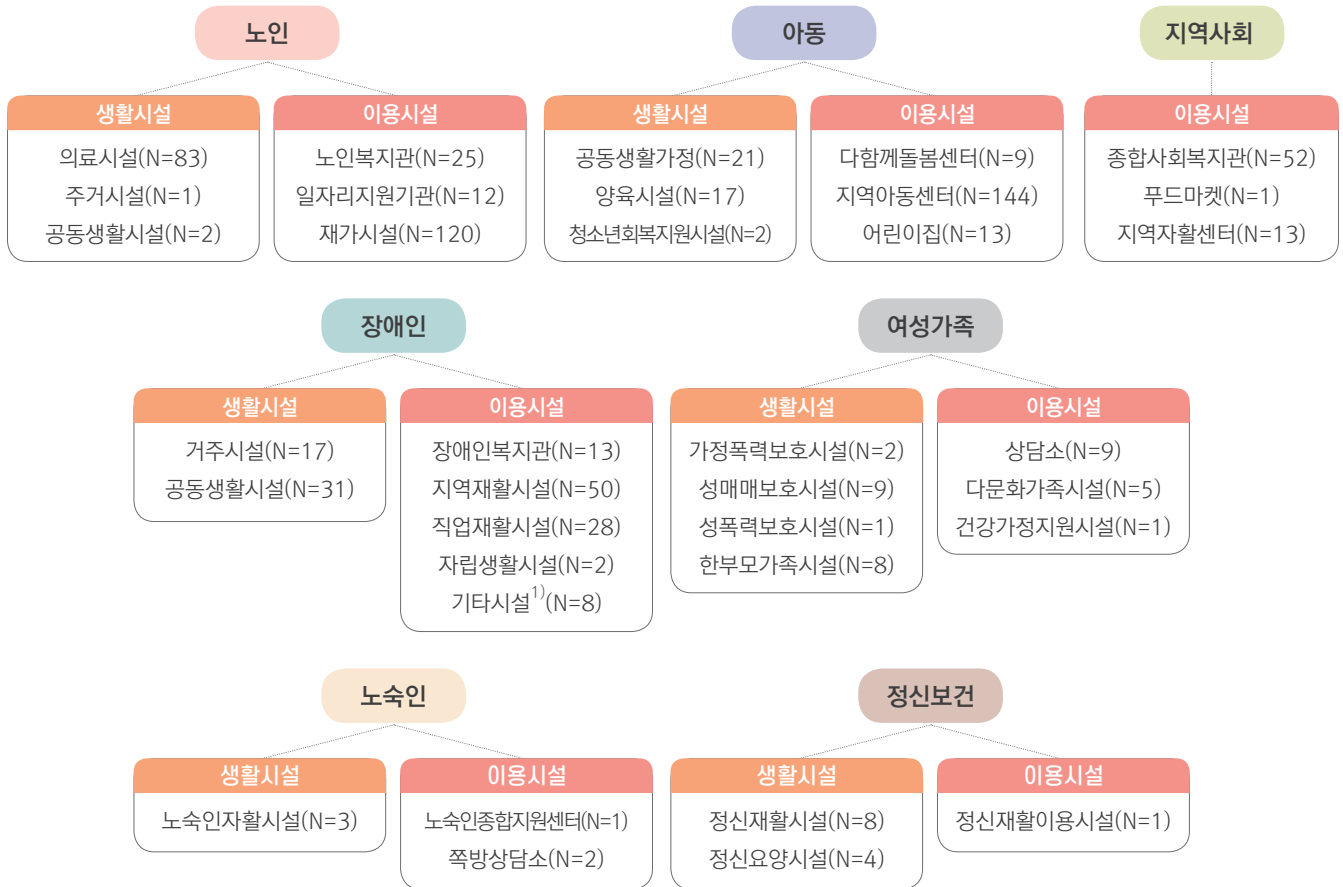
요약

부산 사회복지법인·시설의 후원금품 수입은 매년 증가해 **부산 사회공헌이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세하게 살펴보면 영역과 시설형태, 세부시설별로 후원금품 수입 규모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개별 사회복지법인·시설이 매년 비슷한 수준의 후원금품 수입을 유지하고 있어 **사회공헌 자원의 제공처가 한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후원금품 수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인·시설의 설립시기, 규모, 근무자 역량, 서비스 대상자의 수 등 이번 조사에서 포함할 수 없었던 다양한 요인들을 주요 변수로 조사와 분석이 진행된다면, 사회공헌 자원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정된 지역사회공헌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사회복지시설 분류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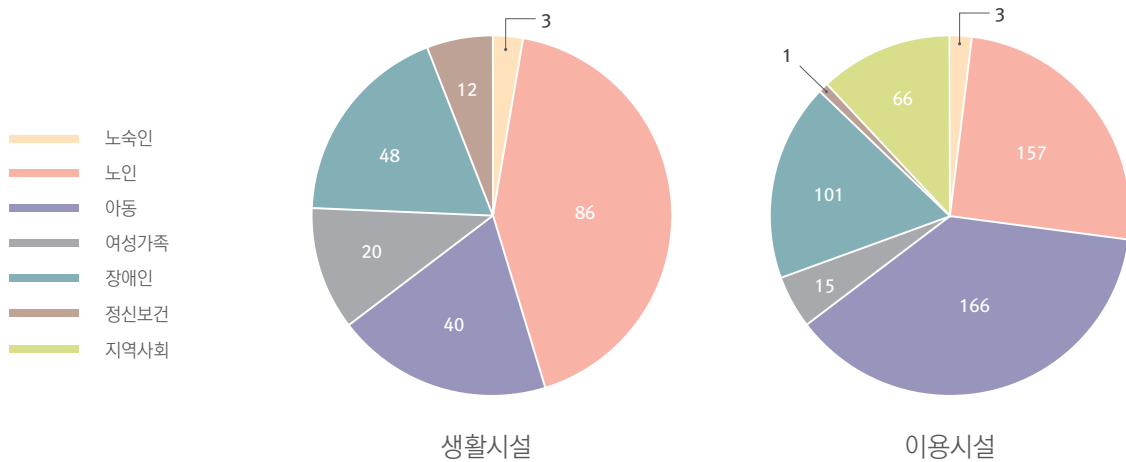


전체 조사대상 831개중 사회복지법인 113개를 제외하고
 718개의 사회복지시설을 관련 법령과 주이용자를 기준으로
 2종류의 시설형태, 7개 영역, 35종의 세부시설로 분류했습니다.

주이용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시설은 지역사회 영역으로 분류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상위계층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지역사회복지시설의 주이용자이지만,
 종합사회복지관은 모든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지역사회복지시설입니다.

1) 수어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생활활동지원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시설의 수가 적어 기타시설로 통합

▶ 사회복지시설 현황 ——— 부산에 사회복지시설은 얼마나 있을까요?



위 그림은 이번 조사의 사회복지시설 분류표를 기준으로 시설 비율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718개 사회복지시설을 시설형태와 영역을 기준으로 구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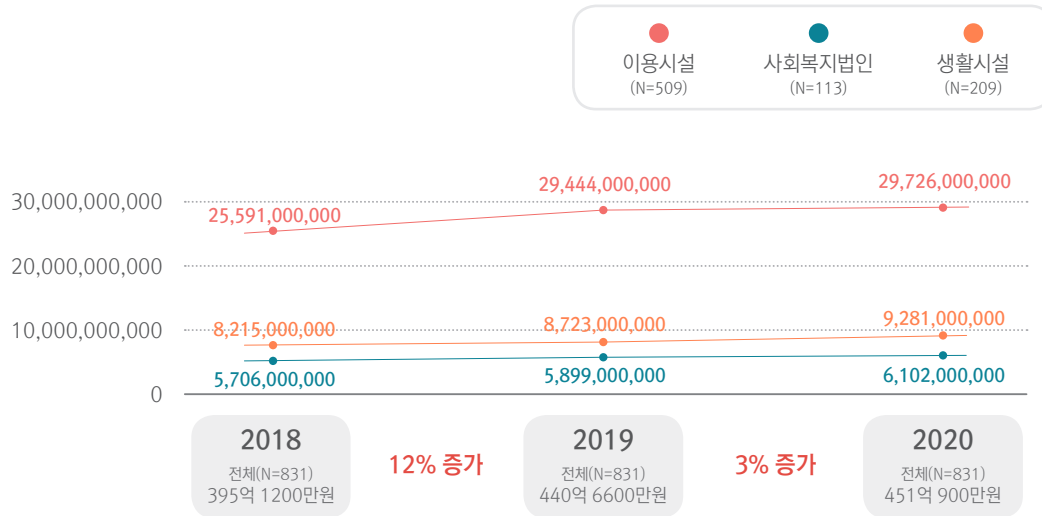
사회복지시설의 수는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수요자의 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2020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부산 노인인구는 657,711명(19.4%), 장애인인구는 176,293명(5.2%), 14세 미만 아동인구는 약 369,352명(2020년 5월 기준)입니다.

수요자의 수를 반영해 부산 사회복지시설은 노인과 아동, 장애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형태별 현황은 생활시설(209개)보다 이용시설(509개)이 약 2.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²⁾ 이용시설은 아동영역 시설(41%)이 가장 많았고, 생활시설은 노인영역 시설(32%)이 가장 많았습니다.

가장 많이 조사된 세부시설은 지역아동센터(144개)와 재가노인시설(120개)이었습니다.

2) 본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와 시설 분류표에 근거한 것으로 실제 시설 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시설형태별 규모 ——— 부산의 사회공헌 자원의 전체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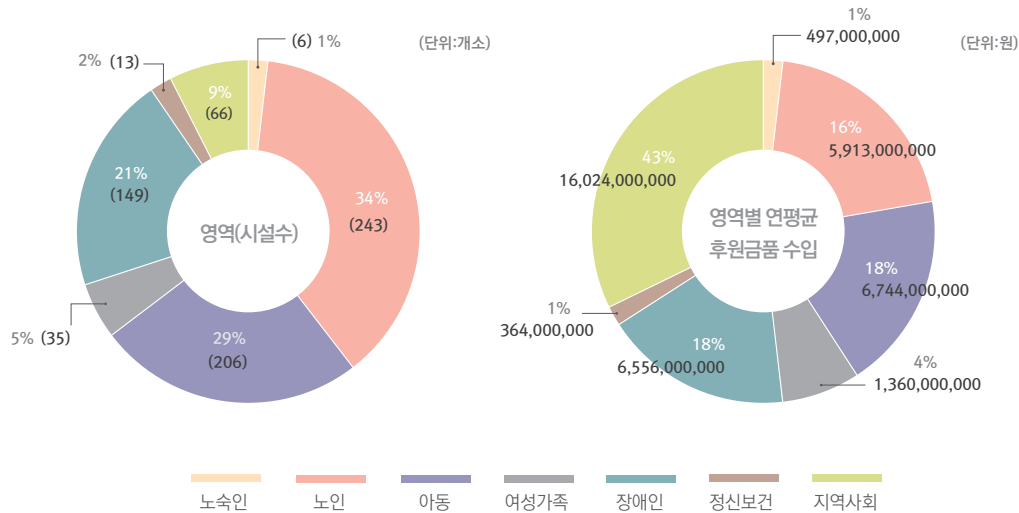
전체 후원금품 수입 규모는 전년대비 2019년 12%, 2020년 3% 증가해 3년 동안 약 59억 9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용시설 증가분이 약 41억 3500만원으로 전체의 69%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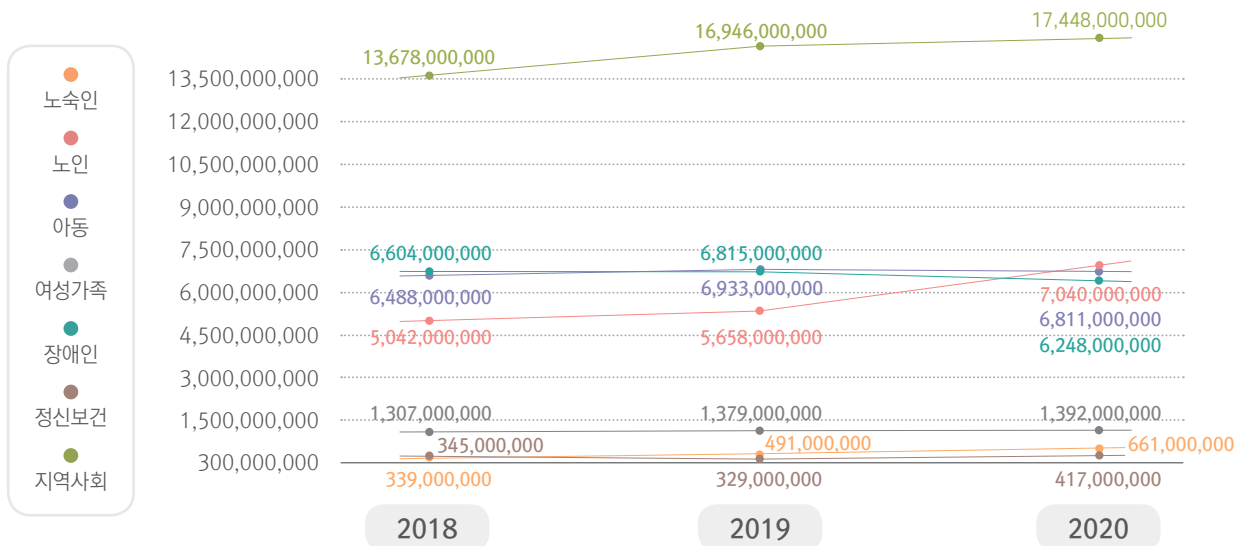
시설(법인)형태별로 후원금품 수입 규모의 평균값을 계산해보면 이용시설의 연평균 후원금품이 생활시설의 평균값보다 약 1400만원 많았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수는 가장 적었지만 생활시설보다는 연평균 후원금품 수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영역별 현황** ——— 부산의 사회공헌 자원은 어떤 영역으로 향하고 있을까요?



지역사회 영역 시설 수는 전체의 9% 수준이었지만, 연평균 후원금품 수입은 160억 2400만원으로 전체의 43%에 달했습니다.



영역별로 변화를 살펴보면 지역사회 영역은 3년 동안 약 37억 증가해 규모면에서는 가장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0년까지 대부분 영역의 후원금품 수입이 증가했지만 장애인 영역은 3년 중 2020년의 후원금품 수입 규모가 가장 적었습니다.

▶ 시설형태별 현황 — 같은 영역이라도 시설형태에 따라 후원금품 수입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 시설형태 · 영역별 시설연평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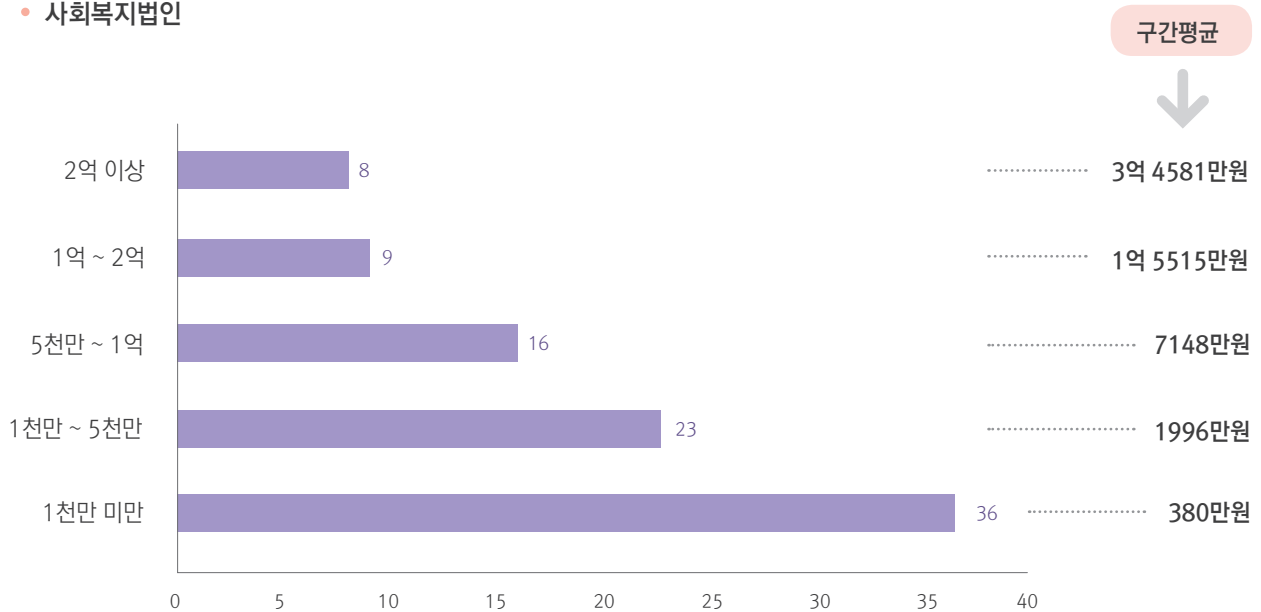
시설형태 · 영역별 연평균 후원금품 수입을 계산해 분석해봤습니다. 영역을 기준으로 왼쪽은 생활시설, 오른쪽은 이용시설의 영역별 연평균 수입입니다. 결과적으로 영역 및 시설형태에 따라 후원금품 수입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대로 전체 연평균 규모는 지역사회 영역의 영향으로 이용시설이 더 컸습니다. 그러나 **지역사회 영역을 제외하면 이용시설의 연평균 규모는 2865만원**으로 생활시설보다 적었습니다.

노숙인 · 노인 영역은 이용시설의 평균 후원금품 수입이 더 많았고, 아동 · 여성가족 · 정신보건 영역의 생활시설의 평균 후원금품 수입이 많았습니다.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의 평균 후원금품 수입 격차가 가장 적은 영역은 장애인 영역이었습니다.

▶ 구간별 분포 ——— 후원금품 수입을 구간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어떨까요?

• 사회복지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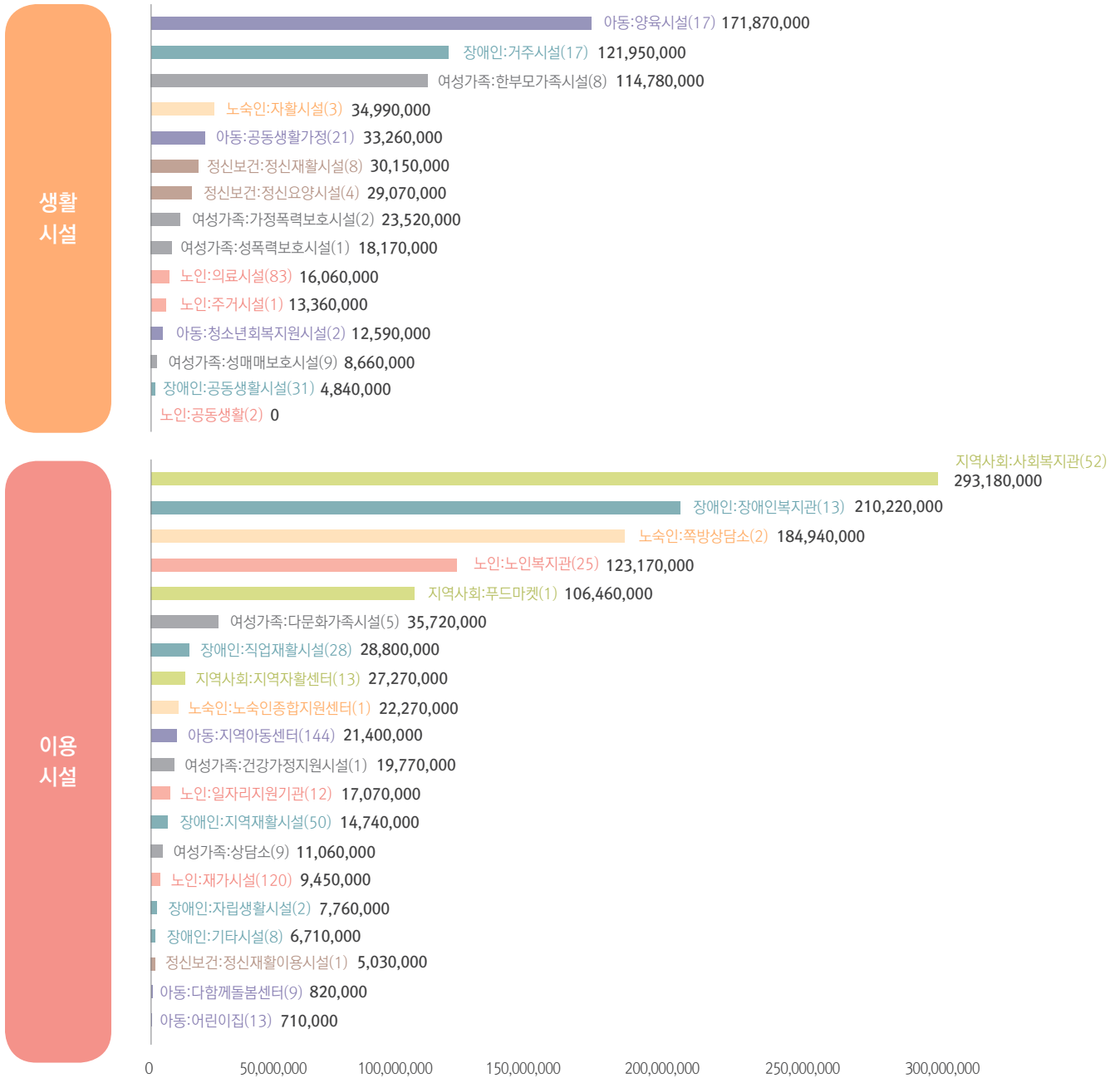
사회복지시설의 주요 운영 주체인 사회복지법인의 후원금품 수입은 위탁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1년 1월을 기준으로 부산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은 총 226개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절반인 사회복지법인 113개소의 후원금품 수입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프에는 나타나지 않지만³⁾, 사회복지법인 113개 중 3년간 후원금품 수입이 '0원'인 곳은 21개였습니다.

구간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 법인 92개 중에서 36개(39%)가 1천만원 미만 구간에 속해 있었고 해당 구간의 연평균 후원금품 수입은 약 38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3년간 후원금품 수입이 없었던 법인 21개소를 이 구간에 포함한다면 '0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의 사회복지법인은 전체법인 중 50%에 이릅니다.

3) 해당 값은 평균값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구간 평균 계산에서 제외했습니다.

▶ 세부시설별 현황 ——— 세부시설별의 후원금품 수입 평균을 비교해봤습니다.



35종류의 세부시설로 세분화해 살펴보면 시설 간 격차는 더욱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생활시설 15개의 세부시설 중 연평균 후원금품 수입이 1억 이상인 시설은 3종류였습니다.

또한 생활시설 중 장애인 영역 시설은 2종류였는데 세부시설 간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역을 부문하고 '복지관'의 후원금품 수입이 다른 이용시설보다 후원금품 수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복지관 중에서도 노인복지관의 후원금품 수입 평균이 가장 적었습니다.

II

부산 향토 · 우수기업의 사회공헌 실태 (2015년 이후)

▶ 조사개요

- 범 위 — 부산 향토 · 우수기업 272개
- 조사방법 — 홈페이지 · 언론보도를 통해 외부공시 자료 수집
- 조사내용 — 2015년 이후에 부산 지역 내에서 진행된 사회공헌활동 278개

부산 향토기업 · 우수기업 사회공헌 실태



부산을 대표하는 향토기업⁵⁾과 우수기업⁶⁾은
어떤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외부에 공시한
기업 사회공헌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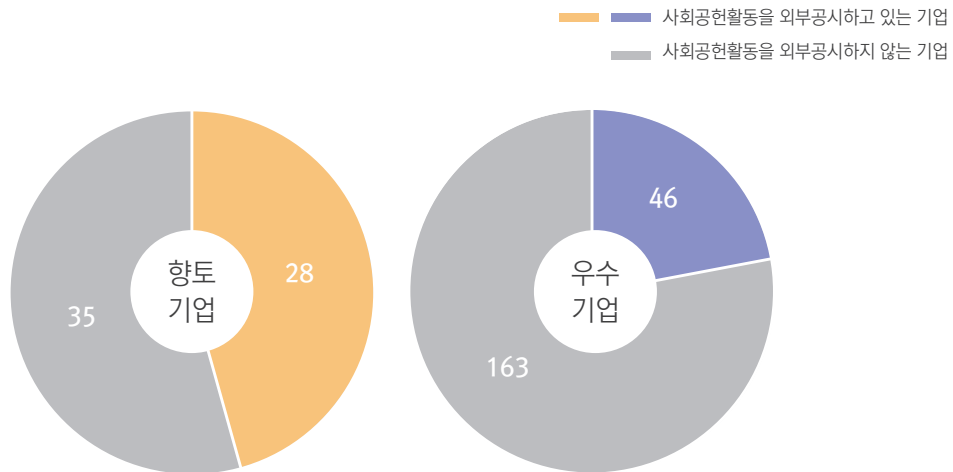
실태조사 결과 기업의 사회공헌 예산규모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지만, 우수기업에 비해 경영기간이 길고 매출규모가 큰 향토기업이 평균적으로 더 많은 수의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회공헌활동보다는 지속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외부 공시된 74개 기업의 278개 사회공헌활동 사례를 분석해보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지원(사회복지 분야)에 기업 사회공헌 자원이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부산의 기업 사회공헌이 단순 기부 및 자원봉사 등 단순한 방법의 사회공헌활동이 진행되어 다양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 부산광역시 내에 본사를 두고 30년이 경과한 상시 종업원 100명 이상, 최근 3년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중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심의를 거쳐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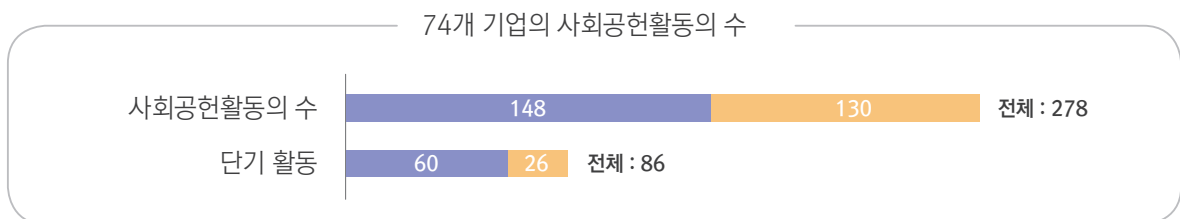
6) 시에서 수여하는 중소기업인대상, 벤처기업인상, 수출대상 및 사회공헌장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등(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직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기본 현황 ——— 몇 개의 기업이 사회공헌활동을 얼마나 하고 있을까요?



사회공헌활동을 외부 공시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 272개 중 74개(27%)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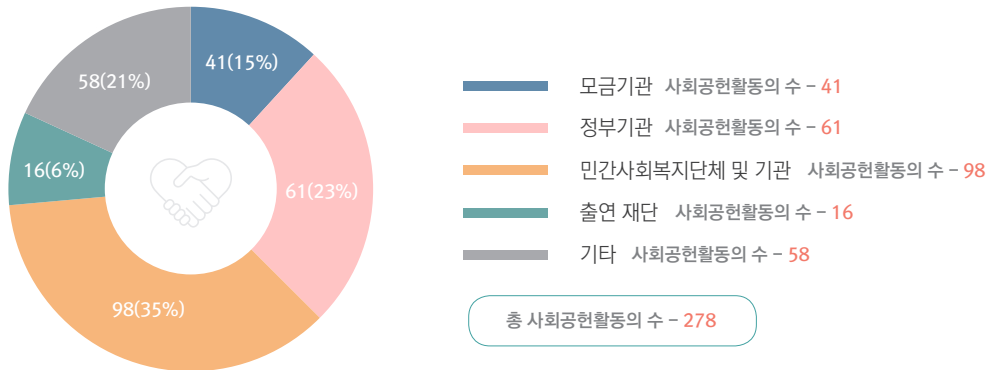
사회공헌활동의 외부 공시 비율은 우수기업(22%)보다, **업력이 길고 매출이 많은 향토기업(44%)**이 높았습니다.



우수기업 46개가 148개의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했고, **단기 활동은 약 40%**였습니다.

향토기업은 28개가 130개의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 우수기업에 비해 더 많은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기 활동 비율은 20%인 것으로 나타나 우수기업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 파트너십 유형 ——— 부산 기업 주로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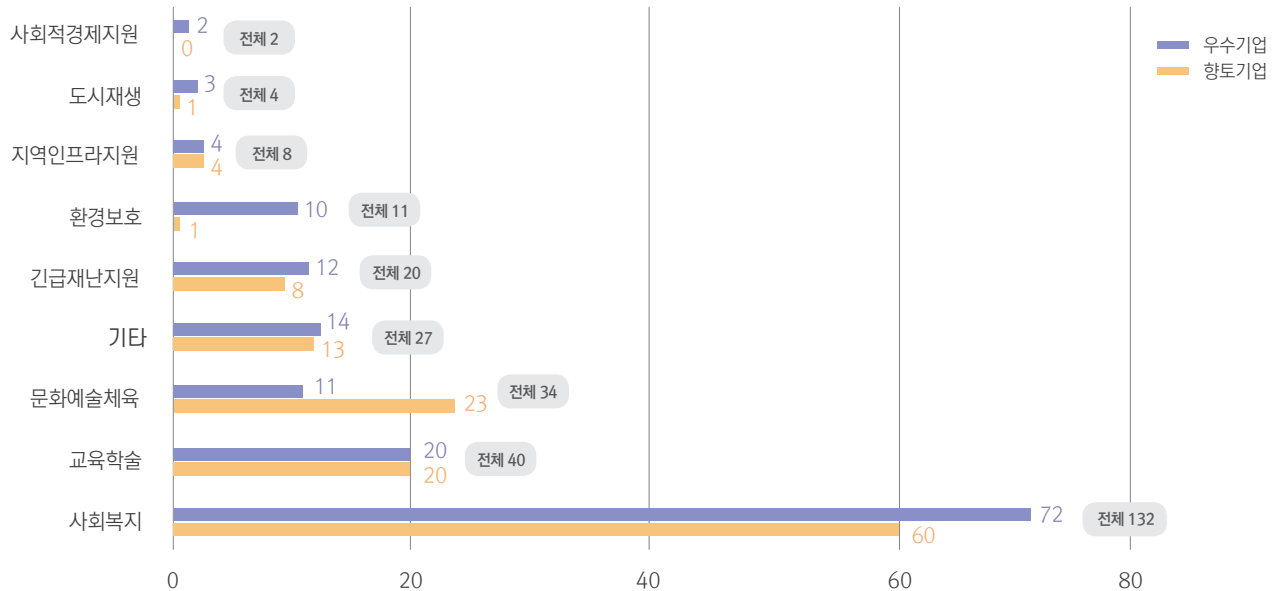
74개 부산기업이 진행한 278개 사회공헌활동의 파트너십 유형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민간사회복지단체 및 기관 비율이 35%였습니다**. 즉 기업이 사회공헌활동을 할 때 복지관이나 양로시설, 아동시설 등 민간 사회복지단체 및 시설을 가장 먼저 찾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 정부기관에 기업 자원을 전달하는 경우도 23%에 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부기관을 통할 때는 모금기관(사회복지공동모금회)을 거쳐 해당 지역 지자체에 지정기탁 하는 방식으로 자원을 전달하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서는 모금기관과 정부기관을 별도로 구분했습니다.

기타 방법을 활용한 경우는 별도 전달체계를 거치지 않고 기업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자원봉사활동이나 공익캠페인, 사회공헌 행사, 기업 내부의 특수 기술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들이 포함했습니다.

기업에서 출연한 재단을 활용하는 사례는 가장 적었습니다. 이는 기업이 사회공헌을 위해 비영리재단을 설립한다 하더라도 기업과 재단의 활동 자체는 구분하여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회공헌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나 모금기관과의 네트워크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 사회공헌분야 ——— 부산 기업의 관심 사회공헌분야는 무엇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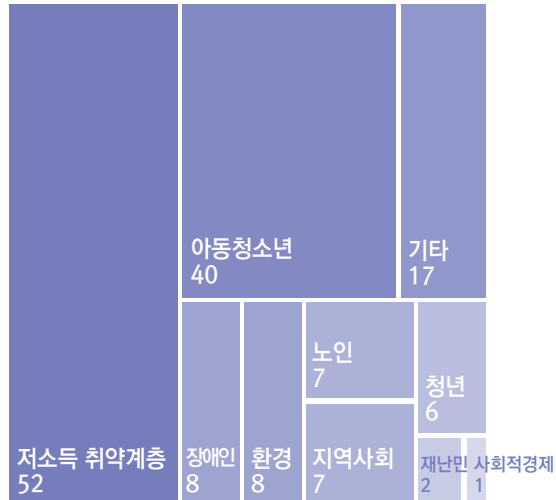


부산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사회공헌 분야를 분석한 결과, **전체 중 47%가 사회복지 분야**로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사회복지 분야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과 생계를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을 포함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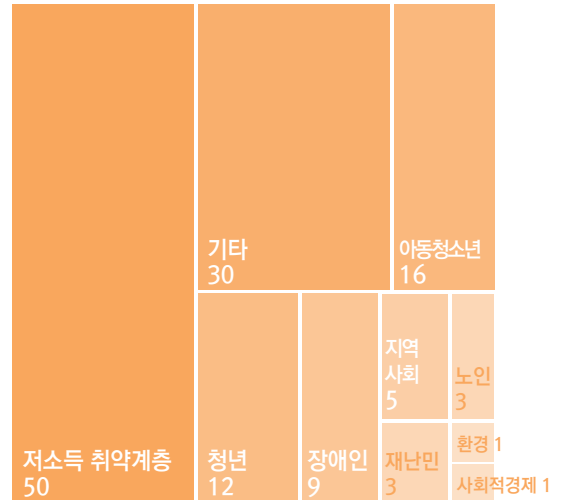
문화예술체육 분야에는 향토기업의 관심이 높았는데, 문화예술인 및 체육인에 대한 스폰서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우수기업의 활동 사례가 많았습니다. 주요 사례는 쓰레기 줍기, 환경보호 캠페인 참여 등입니다.

가장 관심도가 낮은 분야는 사회적경제기업 대한 지원과 도시재생 분야였습니다. **부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부산사회적경제지원기금(BEF)을 조성해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고 있었지만, 그 외의 민간기업들은 사회적경제 분야에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사례가 없었습니다. 이는 해당 분야에 대한 **부산 기업의 이해나 관심도가 낮거나 사회적경제기업과 경쟁적 관계**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 주요대상 ——— 누구를 지원하길 원했을까요?



〈우수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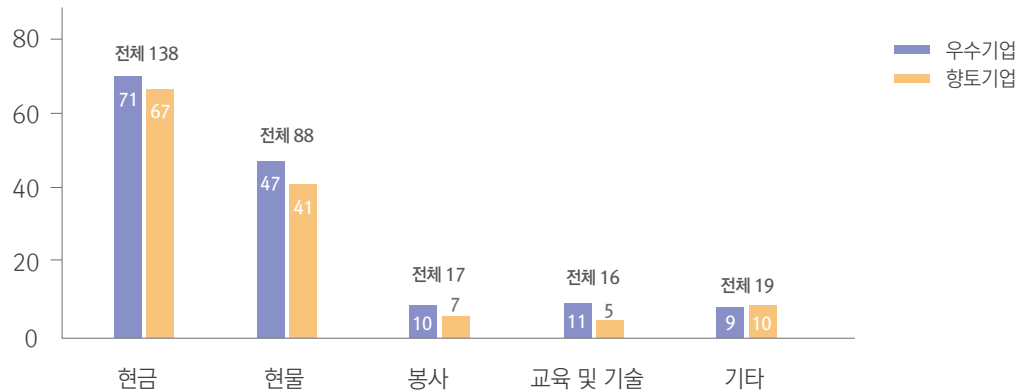
〈향토기업〉

이번 조사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을 따로 구분한 이유는 대부분 기업 사회공헌이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저소득 취약계층이라고 명시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회공헌활동 내용이 ‘저소득 아동’ 지원일 경우 저소득 취약계층 항목에는 포함하지 않고 ‘아동·청소년 항목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면 부산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타깃은 누구였을까요? 전체 사회공헌활동 중 36.6%(102개)가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이었으며, 활동의 수는 우수기업과 향토기업이 비슷했습니다.

차이가 있는 부분은 우수기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공헌활동이 더 많은 반면 향토기업은 기타(문화·예술인, 스포츠선수, 기업인, 사회복지사 등)를 대상으로 한 사회공헌활동이 더 많아 향토기업이 우수기업보다 다양한 대상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 지원 유형 ——— 어떤 방법으로 자원을 전달했을까요?



지원 유형은 사회공헌 자원을 전달한 수단을 의미합니다.

사회공헌활동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기부금 또는 물품을 지원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지원 유형도 278개 사례 중 현금과 현물 지원이 226개(81%)에 달했습니다.

다만 현물을 지원 한 88개 활동 중 35개가 봉사⁷⁾가 동반된 활동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 위 그래프에서 봉사 항목은 봉사 활동만 진행했을 경우만 해당합니다.

III

기업 임직원 사회공헌 인식 조사

▶ 조사개요

- 조사대상 — 부산 기업 임직원 57명
-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내용 — 기업 사회공헌의 목적, 사회공헌에 대한 인식, 기업 사회공헌 방향 등

기업 임직원 사회공헌 인식 조사



시민이자 사회공헌의 주체인 기업 임직원들은
사회공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기업 사회공헌은 무엇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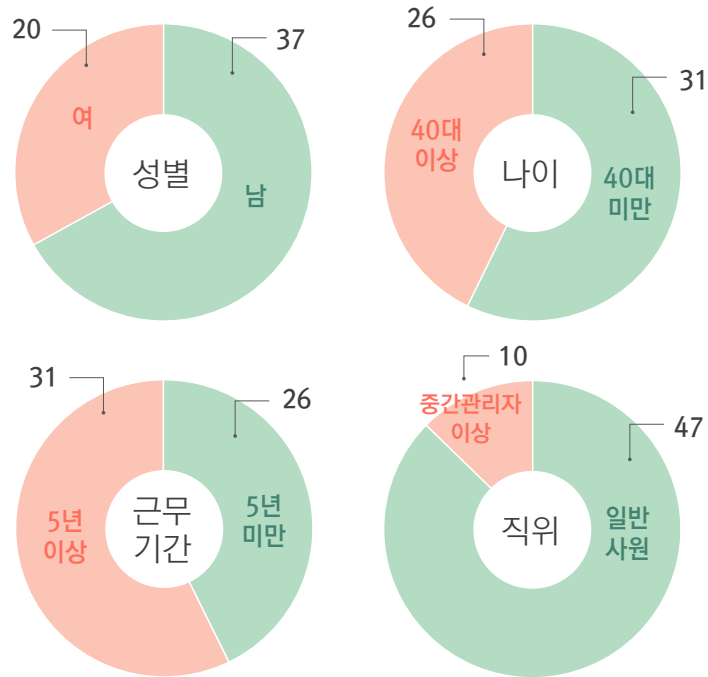
요약

요약에 앞서 이번 설문조사 참여자는 57명이므로 참고하는 수준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 지원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업 사회공헌 실태와는 반대로, 설문에 참여한 기업 임직원들은 ‘지역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공헌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성을 가진 사회공헌활동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임직원 인식 강화와 더불어 시민의 관심이 가장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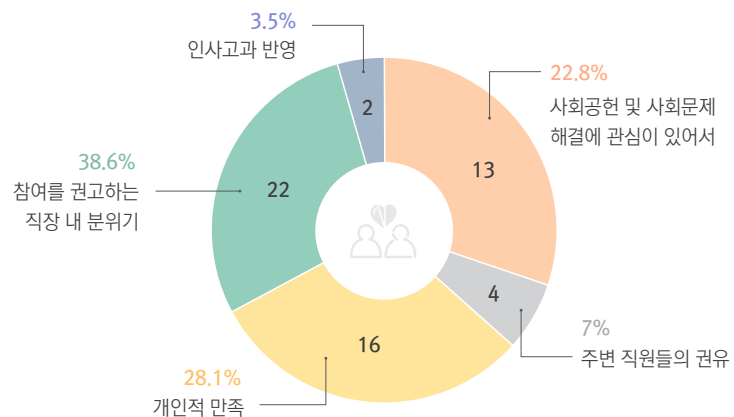
▶ 대상자 특성

(N=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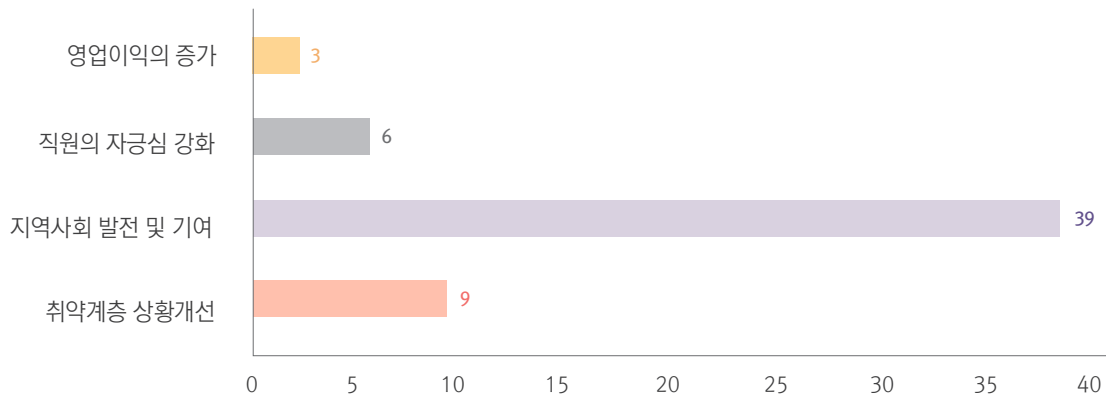
▶ 사회공헌 참여 계기 ——— 자신이 속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왜 참여하고 있을까요?

(N=57)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게(할) 된 계기로는 ‘참여를 권고하는 직장 내 분위기’이라고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위 문항을 ‘개인적 이유’와 ‘집단적 이유’로 재범주화해보면 각기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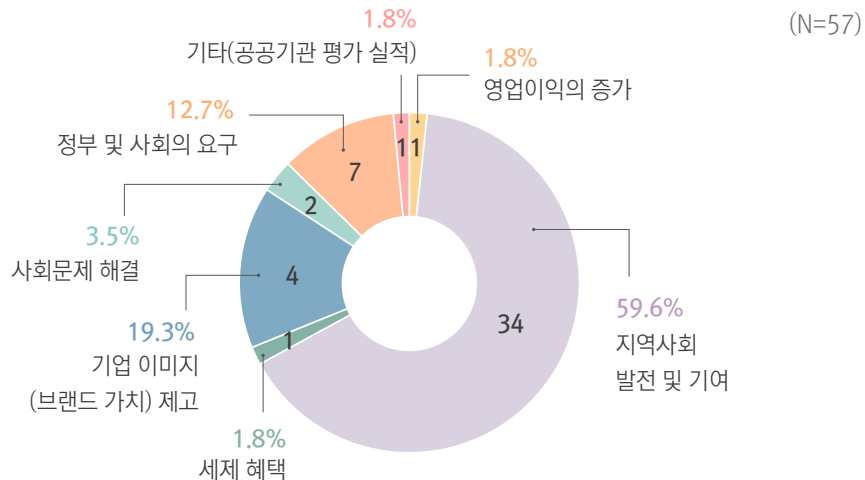
▶ 주관적 기대효과 ———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할까요?



응답자 68%가 기업 사회공헌활동이 ‘지역사회 발전 및 기여’에 기여할 것이라 응답했습니다.

대부분 기업 사회공헌활동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되는 응답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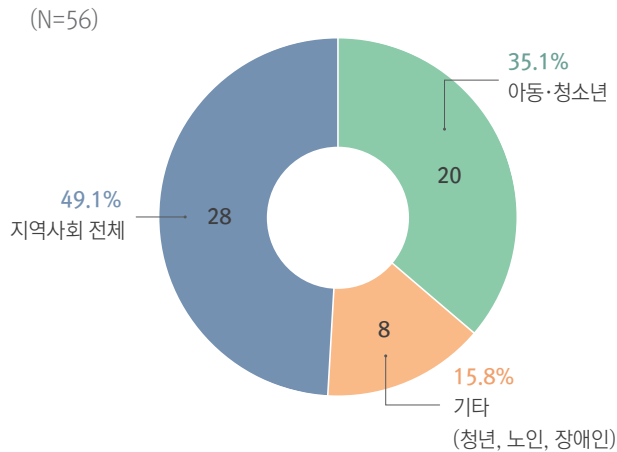
▶ 기업 사회공헌의 목적 ——— 소속된 기업은 왜 사회공헌활동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기업 사회공헌 목적이 ‘지역사회 발전 및 기여’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59.6%로 가장 많아, 응답자가 생각하는 사회공헌활동 기대효과와 기업의 목적이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및 사회의 요구, 기업 이미지 제고 등으로 응답이 분산되는 경향도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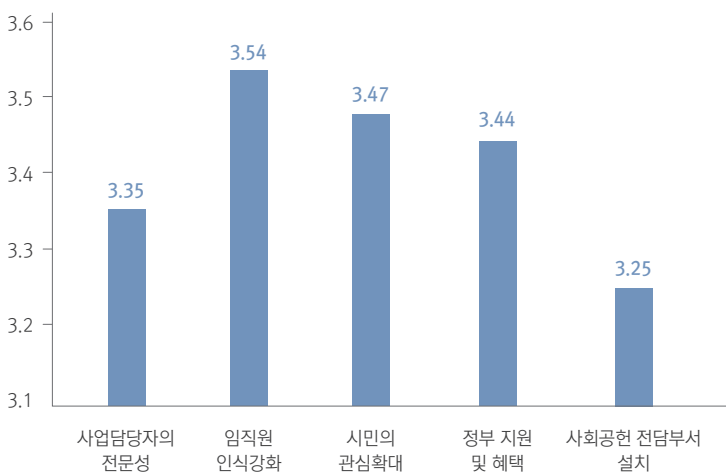
▶ 주요대상 ——— 사회공헌 대상으로 누가 적합한지 질문했습니다.



기업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할 사회공헌 대상으로 ‘지역사회 전체’를 1순위로 꼽았습니다.

즉 사회공헌의 목적과 기대효과를 ‘지역사회 발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대상도 ‘지역사회 전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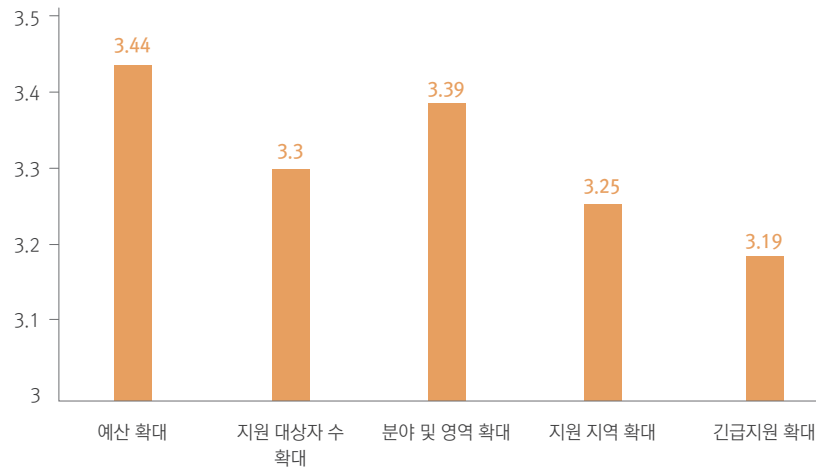
▶ 효과성 확보 ——— 사회공헌활동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하려면?



사회공헌활동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임직원 인식 강화(3.54)를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회공헌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민의 관심 확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업의 일원이자 시민인 임직원에게 지속적인 교육이 진행된다면 주변 시민들로 효과가 확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 확대 방향성 ———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확대 방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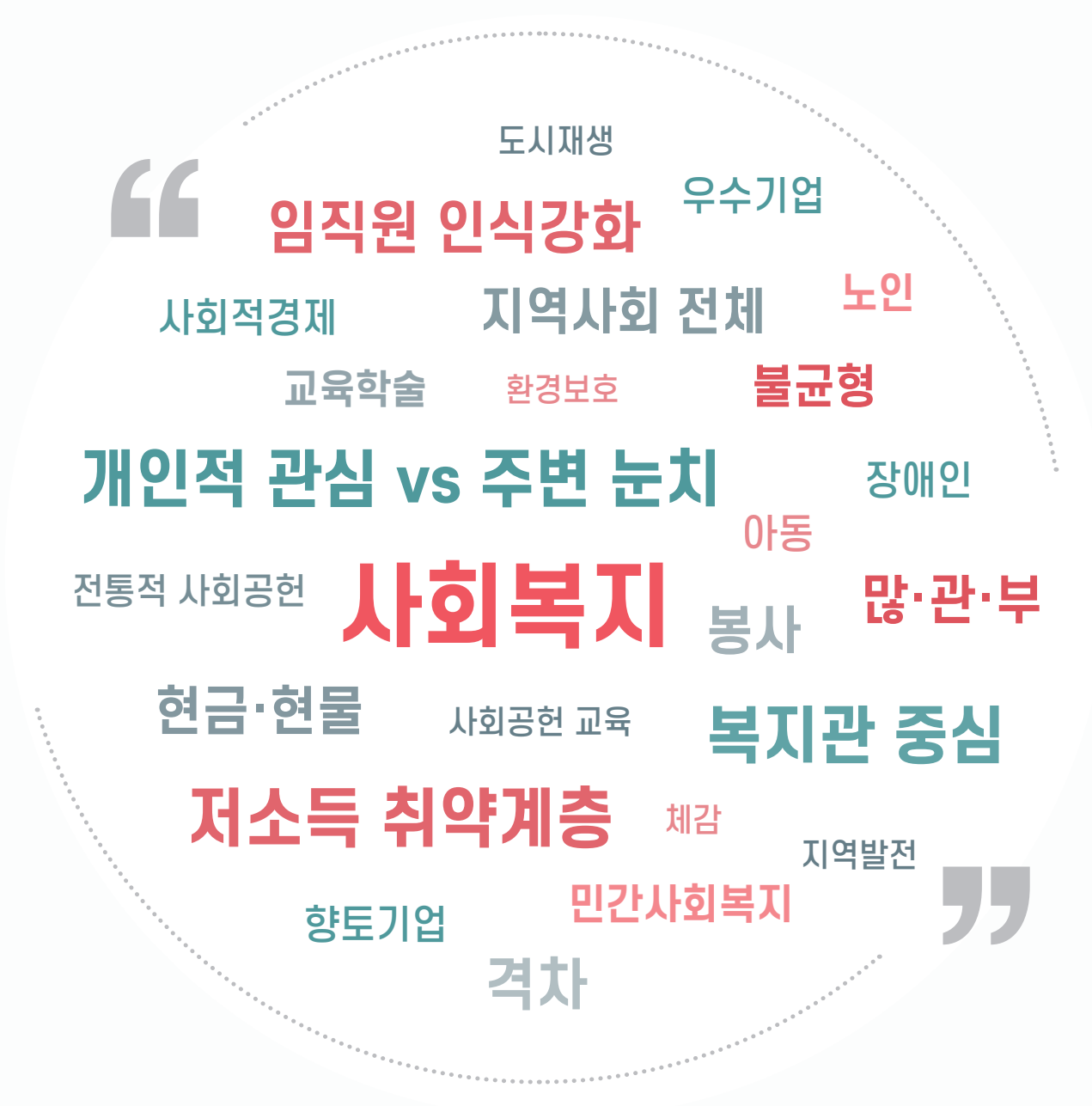


여러 사회공헌 관련 자료를 확인하면 기업 사회공헌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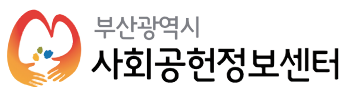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임직원들은 기업의 사회공헌 예산 확대가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분야 및 영역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는 ‘지역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해야한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www.bscrc.org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12, 603호(거제동 로원타워)
TEL 051-502-4455 FAX 051-502-4488

